

석촌동 고분군[石村洞 古墳群]

한성백제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



1 개요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는 석촌동을 중심으로 방이동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위에 걸쳐 한성백제시대의 대규모 고분군이 분포한다. 그중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은 백제 초기의 왕족 또는 귀족의 무덤군으로 당시 도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석촌동은 북쪽으로 한강과 접하며, 동쪽에 낮은 구릉이 있고, 서쪽으로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석촌동 고분군은 성내천을 사이에 두고 풍납토성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몽촌토성과는 약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석촌동 일대는 한강의 범람원 지역으로 강안 제방 남쪽으로 펼쳐진 저지대 배후습지에 해당한다.

석촌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현황 조사 성격의 개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970년대 잠실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분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일면이 밝혀져 방이동 고분군의 잔존 고분과 함께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 사적 공원 내에는 적석총 5기, 즈석봉토분 1기, 토광묘 2기 등 총 8기의 무덤이 정비·복원되어 있다.

2 일제강점기 이래의 석촌동 고분군 조사 경과

석촌동 고분군은 1911년 일제가 실시한 조선 고적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확인되었다. 이때 이미 백제시대의 고분으로 인식되었으며, 1912년에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 타다시(關野 正) 등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자세한 조사 방법이나 성과는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조사에서는 석촌동 일대의 고분 분포도가 작성되었는데, 1916년에 간행된 이 분포도에는 묘제의 형식에 따라 갑총(甲塚)과 을총(乙塚)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갑총 23기, 을총 66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갑총은 석실을 만들고 흙으로 봉분을 덮은 봉토석실분이고, 을총은 돌도 쌓은 적석총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5개년에 걸쳐 고적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1916년에는 석촌동 고분군의 분포와 현상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제 1~4호 적석총의 크기와 상대 위치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석촌동 일대 고분 분포 현황에 대해 “직경 5간(약 9m) 이상인 것이 약 95개소, 그 이하인 것이 22개소, 이 외의 불확실한 다수는 돌과 흙이 섞여 있고, 소수 흙으로 된 것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1916년 간행된 분포도보다 훨씬 많은 고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7년(대정 6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야쓰이 세이이치(谷正濟一)를 중심으로 측량, 제도, 촬영을 위한 3인 이상의 실무 담당 조사원들이 현장 조사에 파견되었으며, 이 일대의 고분 분포에 대한 도면 작성과 석촌리 제 1~4호 적석총, 제 6·7호분, 제 8호분, 가락리 제 1호분 및 2호분 등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실측 작업이 이루어졌다. 최근 1917년에 작성된 고분 분포도가 공개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석촌동 일대에 당시 290여기의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아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하면서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전쟁 때는 미군이 돌무지를 쓸어다 한강을 메우고 도강 작전을 전개했던 탓에 흔적이 모호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근처를 파면 가끔 구슬이나 패물이 나와 일부 주민은 밭을 일구는 것보다 금붙이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 서울시의 잠실 개발에 앞서 문화재관리국 주관의 유적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1969년에 가락동 1, 2호분과 석촌동 소재 고분 2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석촌동 고분에 대한 최초의 정밀 발굴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1년에는 석촌동 5기, 가락동 6기, 방이동 8기 등 총 19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1974년에 석촌동 3·4호분, 1976년에 석촌동 파괴분과 5호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석촌동 3, 4호분에 대한 조사로 비로소 서울 지역에 소재한 적석총이 길림성 집안·통구 지역의 고구려 적석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석촌동 4호분은 계단식 적석총으로 세 번째 단의 상부에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횡혈식 석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석촌동 3, 4, 5호분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과 1984년에는 석촌동 3호분 위와 주변에 있던 민가가 철거됨에 따라 3호분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3호분 복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1984년 3월과 4월에 고분 복원을 위한 4호분 내부와 주변 시설들에 대한 조사 및 5호분의 분구 범위 파악을 위한 트렌치 조사

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6년에 석촌동 3호분의 일부를 훼손하도록 설계된 ‘백제고분로’가 지하 차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3호분 동쪽 고분군으로 불리는 이 조사 범위에서는 토광묘, 옹관묘, 좁석봉토분, 화장유구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1987년에는 사적지 내부의 민가가 철거되고 고분 공원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연합 발굴로 이루어졌는데, 1·2호 적석총 지역은 서울대가, 5호분 주변 지역은 경희대가, 그리고 4호분 주변 지역은 숭실대가 맡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2호분의 규모와 구조가 확인되었고, 다수의 유구가 노출되었다.

1980년대 사적 공원이 조성된 이후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우연찮은 계기로 다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15년 고분군 내에서 지반이 함몰된 구덩이가 발견되어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구덩이 주변에서 여러 기의 적석총이 연결된 형태로 확인되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3 석촌동 고분군서 발굴된 주요 무덤 양상들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가락동 1·2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적석총도 아니고 석실 봉토분도 아닌 특이한 구조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각의 매장 주체부를 덮은 봉분을 덧대어 쌓으면서 마지막에 전체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돌을 깐 모습이었다. 이러한 구조의 무덤을 좁석봉토분이라 부르며, 백제 초기의 독특한 무덤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락동 2호분 안에서는 목관 3기와 옹관 1기 등 4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고, 흑색마연토기와 이중구연호, 손칼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후 가락동·방이동 일대의 구릉에 위치한 고분군이 추가로 발굴조사 되었는데, 가락동 3~6호분은 1·2호분과 달리 횡혈식 석실 구조로 밝혀졌다. 할석을 가로로 쌓아 석실을 만들었는데, 시신이 놓인 현실(玄室)은 방형과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실로 들어가는 널길은 중앙에 위치한 것과 오른쪽 또는 왼쪽에 치우친 것이 섞여 있다. 석실을 구성한 벽석은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점차 안으로 좁아지고, 천장은 한 장의 돌로 덮은 것과 여러 장의 돌을 이어서 덮은 형식이 있다.

이 중에서 구릉의 가장 남단에 독립적으로 위치한 3호분의 발굴 성과가 주목된다. 이 무덤은 남북 방향의 횡혈식 석실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은 남북 길이 370cm, 동서 너비 365cm의 방형이다. 널길은 동쪽인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길이 290cm, 너비 130cm이다. 벽석은 가로로 얹힌 할석으로 80~90cm 높이까지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그 위부터 안으로 조금씩 경사지게 쌓은 후 큰 돌로 천장을 덮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궁륭형 천장이라 하는데, 전형적인 백제 석실의 천장 구조라 할 수 있다. 벽석 표면에는 두께 2cm 남짓 되는 석회를 발랐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실 바닥에는 할석을 깔아서 관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실의 뒷벽 쪽에서 인골 1구와 남벽의 서편에서 인골 1구 등 2구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목관에 안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못 머리 부분이 방형인 관못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무덤에 부장된 유물은 많지 않았는데, 현실의 안쪽 모서리에서 각각 1점의 토기 뚜껑이 출토되었고, 이 밖에 대부완·병 등 신라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 고분은 구조와 형식이 전형적인 백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계 유물이 출토됨으로서 해서 한동안 신라가 축조한 석실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석촌동 고분군 외에 서초 우면동, 하남 광암동과 감일동, 성남 창곡동과 판교 등지에서 4~5세기대의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다수 발견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백제 석실을 신라인이 재사용한 증거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석촌동 일대의 횡혈식 석실분 역시 백제가 처음 축조한 것을 신라가 6세기 중반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재사용하였거나 점차 신라인들이 추가로 조성한 것들이 혼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가락동 5호분은 1975년도 발굴조사 당시 봉토 길이 17m, 높이 2.2m 정도가 남아 있었다. 현실은 남북 길이 280cm, 동서 너비 220cm 정도의 장방형이고 남벽 중앙에 널길이 위치한다. 벽면은 납작한 할석을 가로로 쌓아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안으로 오므라들다 5매의 기다란 돌로 천장을 덮은 구조이다. 현실 바닥은 자갈을 두껍게 깔았는데 그 틈에서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고 내면에 포흔이 남아 있는 고구려계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로부터 이 고분을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475년 이후에 만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1974년도에는 기단식 적석총인 석촌동 3호분과 4호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전형적인 고구려식 적석총으로 그 규모가 거대한 3호분은 3단 정도만 남아 있었다. 시굴 단계에는 3단째 계단 외곽에 부곽으로 추정되는 석곽이 확인되었으나 도굴된 상태가 심하여 자세한 양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후 1983~84년도에 복원·정비를 위한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3호분의 규모가 동서 50.8m, 남북 48.5m로서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집안(集安)의 태왕릉과 비슷한 규모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상부가 심하게 파괴되어 매장주체부의 양상은 물론 몇 단의 계단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3호분의 적석부에서는 4세기 동진제(東晉製) 청자 반구호편과 백제토기, 옥을 마연하는 숫돌, 석추, 금제 영락 등이 출토되었다. 초대형의 무덤 규모와 출토 유물의 연대로 학계에서는 석촌동 3호분을 4세기 후반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3호분 남쪽에 위치한 4호분은 한 변의 길이가 17m 정도인 방형에 3단으로 축조된 적석총이다. 내부를 전부 돌로 채운 3호분과는 안쪽에 점토를 판축하고 바깥에 돌을 입힌 특이한 구조이다. 3단 정상부에 횡혈식 석실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규모는 동서 4.6m, 남북 4.8m의 방형에 가깝다. 연도는 남벽 중앙에 달려 있고, 현실의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판축한 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적석부 위에 덮인 퇴적토 및 주변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동전무늬를 찍은 막새기와도 있다. 바깥에 돌을 입히고 내부를 점토로 채운 방식은 인접한 2호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2호분에서는 목짧은 항아리와 손칼이 출토되었다.

1호분은 2기의 고분이 연접한 쌍분인데 전체 길이가 22m 정도이다. 북분은 방형 평면에 내부를 점토로 채운 백제식 적석총이고, 남분은 내부와 외부를 전부 돌로 채운 고구려식 적석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무덤의 연결부는 점토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연접한 하나의 고분이 서로 다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고구려식 적석총이 백제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이해된다. 1호분 북편에서는 내원외방형(內圓外方形)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16m 가량의 방형 외곽과 안쪽의 원형 구조물 사이에 돌을 채운 특이한 구조로서 이것이 무덤인지 제단과 같은 용도의 시설인지는 알 수 없다. 5호분은 4호분 남쪽으로 250m 떨어져 위치하는데, 원래는 타원형 혹은 장방형의 좁석봉토분이나 현재 원형의 봉토분으로 복원되어 있다.

석촌동 일대에는 이러한 적석총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고분이 분포하는데, 석촌동 파괴분이라 불리는 5기의 토광묘로 이루어진 좁석봉토분을 비롯하여 석곽묘, 옹관묘, 토광적석묘, 석실옹관묘, 화장유구 등

이 있다. 그중 대형 토광묘는 길이 10m, 너비 2.6~3.2m, 잔존 깊이 80cm 정도의 대형 토광 내부에 8기의 목관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2015년부터는 석촌동 1호분과 2호분 사이에 위치한 구역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형 적석묘와 연접부, 매장의례부로 구성된 대규모 연접식 적석총이 확인되었다. 3기의 매장의례부에서는 토기와 기와편, 토제품, 장신구 등과 함께 여러 개체의 화장 인골이 다량 출토되었다. 2020년에는 1호분 및 내원외방형 적석총 사이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북쪽구역에서 확인된 적석묘 13기에 연접된 적석묘 15기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주변으로도 계속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이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건대 석촌동 일대에서는 백제 전기부터 토광묘와 옹관묘, 즈석봉토분 등 백제 재지 세력의 고분이 조영된 위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대한적석총이 축조되고, 내부를 점토로 채우고 횡혈식 석실로 매장부체부를 만든 백제식 적석총이 만들어져 방이동 일대까지 묘역이 확대되다가 475년 이후 고구려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에 의해 석실분이 연속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은 사적 공원 내에는 적석총 일부와 즈석봉토분 등 소수의 무덤만이 남아있지만, 석촌동 고분군은 불과 백 년 전만 해도 300기 가까운 거대한 고분이 이 일대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한성백제시대의 왕족과 최상위 귀족 계층의 무덤군이다.